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 목민상 수상

정읍시가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주관 '2021 목민상 시상식'에서 기초단체 부문 목민상을 수상했다.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유진섭 시장에게 목민상을 전달했다.

시는 소상공인 기본소득 제정과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방역 출입 관리 인심돌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읍시민의 독특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쳤다.

특히 올해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 해법을 찾기 위한 상권회복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내 상담창구 운영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 추진에 대해 서도 높게 평가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하서 백련초 학생들
바자회 수익 성금 기탁

부안군 하서면 백련초등학교(교장 김중숙) 학생들이 교내 체육관에서 키운 닭 40여 마리를 통해 얻은 계란을 판매, 연말 바자회를 통한 수익을 어려운 소외계층 이웃을 도와달라며 현금1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다.

올해 백련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나눔은 체험농장에서 생명 존중과 나눔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닭 40여 마리를 직접 먹이를 주며 닭을 키우는 체험을 하였으며, 계란을 팔아 수익의 기쁨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고 연말 바자회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우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눔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김중숙 백련초등학교 교장은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을 통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나눔의 즐거움을 알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배우고 익히는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안"

정읍시, 7억 4400만원 투입... 생애 초기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부안군, 2021년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 표창 수상

정읍시가 내년부터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 현상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내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는 총 사업비 7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출생 순위에 상관 없이 출생아 당 200만원(일시금)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 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포털(www.bk21.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포털 신청은 1월 5일부터, 정부24 신청은 1월 7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2021년 모자보건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실제 군은 출산장려금과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지난 2019년 조례개정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해 출생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안군으로 관내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연인원 750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 다자녀 가구는 올해 총 200명에게 건강관리비(1인당 144만원)와 출생용품비(1인당 400만원)를 선별해 지원했으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산모 90명에 지원하는 등 군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밖에 난임부부 70명, 임신부이송비 168명, 산후 건강관리지원 121명,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15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5명, 저소득층 저자귀·조제분유 지원 195명, 영양플러스사업 107명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군은 오는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에 상관없이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임신부에게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의 확대·개선을 통한 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안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높을고창물, 메타버스 쇼핑몰 G-FLEX 선보여

전북대 링크플러스사업단 공동 주관... 자연경관 · 지역 특산물 구매 일석이조

고창군이 지난 27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town)을 활용한 지자체 최초 메타버스 쇼핑몰 'G-FLEX'를 오픈행사를 가졌다.

고창군 메타버스 쇼핑몰인 'G-FLEX'는 고창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높을고창물 구독관에서 구독상품 구매 △고창군 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청보리밭, 고창읍성, 운곡습지, 고인돌 등 여행지 소개 △식초 문화도시 고창 특별 제작 영상 시청 △퀴즈 및 사진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행사도 진행했다.

특히, G-FLEX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용도와 온라인 쇼핑 구매력이 매우 높은 MZ세대에게 고창군의 유명 특산물 구매와 고창 유명명소를 알리는 시스템으로 적격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고창군이 지난 27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town)을 활용한 지자체 최초 메타버스 쇼핑몰 'G-FLEX'를 오픈행사를 가졌다.

G-FLEX에 접속한 누리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친구들과 직접 만나기 쉽지 않는데, 메타버스를 통해 친구들과 고창군의 유명 관광지와 특

산물도 알게 되었고, 이벤트도 함께 참여하는 등 재미있고 신선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재해위험시설 현대화 사업 교부세 확보

고창군이 중앙부처 특별교부세(국비) 3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고창군은 올해 총 18건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억5000만원 가량 증액됐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재해위험시설 현대화 사업"은 공음면 선동리 부근 교량을 재가설한

다.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집중적으로 토사가 밀려오는 상습적재간이다.

토사 유입으로 배수구가 막히고 침수피해 발생이 빈번한 지역이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준설작업만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폭을 넓히고, 교량을 재가설하면 배수 흐름이 원활화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상서면 지사보협,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

부안군 상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송경애, 민간위원장 안일동)는 지난 23일 홀몸어르신 150세대에 "사랑의 떡국 떡"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상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세심한 정성과 이웃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

위원들 자발적으로 직접 농사 지은 쌀 220kg을 기부하고, 떡 뿐만 아니라 맛을 내기 위한 사골육수팩, 시중에는 팔지 않는 4구 계란팩을 마련했으며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냉팩에 포장하여 상서면민의 떡국 떡 키트를 제작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연말에 작은 정성이지만 떡국 떡 나눔 행사 기획부터 키트 제작, 배부까지 모든 과정에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보답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기쁜 마음 그대로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서면장(송경애)은 "올 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매서운 추위로 힘든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내년도 사자성어 '노적성해(露積成海)' 선정

정읍시가 2022년 시정 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선정했다.

노적성해는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작은 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목표를 이룰 만큼 그 힘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에는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경각심 등 어려움이 이어지더라도 공직자와 시민 한 분, 한 분의 기대와 희망, 의지의 결집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맞았으나 매년 시민들의 신뢰와 화합을 통해 극복해 왔던면서 '내년도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은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동시에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민선 7기 중요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주재원 확보와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